



백승진 백치과

- 서울 치대 졸업
- 버펄로 뉴욕 주립대 보철과 수련 및 석사
- 서울대학교 박사 (보철학 전공)
- (현) 서울 치대 보철과 외래 교수
- (현) 성균관 대학교 의과 대학 외래교수
- (현) 카톨릭 대한교 의과대학 임상 치과 대학원 외래교수

심미효과 및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all ceramics 수복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재료 (장석, alumina, leucite, lithium disilicate, 산화 alumina, zirconia 등)와 다양한 가공 술식 (주조법, slip cast법, 전해법, 합침법, 가압법 등)의 개발되었다.

all ceramics의 고전이라 불리는 In-ceram과 Empress는 이미 10년 이상의 임상 test를 거쳐 우수한 조작성과 임상에서는 충분한 안정성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single crown에 대한 우수한 임상결과에 반해서 아직 metal-free bridge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화 alumina와 zirconia가 높은 내구성을 가진 최적의 재료로 평가되었지만 제작과정이 복잡한 단점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도증가라는 장점에 비해 불투명성의 증가라는 심미적 단점은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점으로 계속 남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서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all-ceramic system이 개발되어 시판 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신뢰 가능한 임상 test 결과와 보고 된 바가 없다. all-ceramic system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5년의 임상 test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시판 되는 system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새로운 system이 기존 system과 비교하여 확실한 장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 의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자는 이러한 all-ceramic의 임상에서의 실체를 밝혀 보고자 한다.